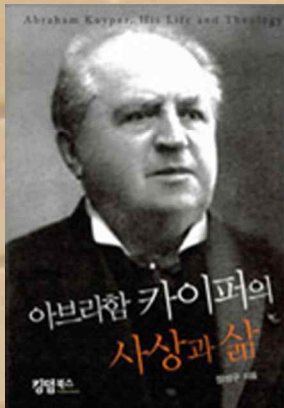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기독교세계관의 사상적 체계를 이룬 아브라함 카이퍼

정성구



기독교세계관의 사상적 체계를 이룬 카이퍼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세계관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입장, 전제에 따라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이 크게 달라진다.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을 유물주의 세계관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사고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전 분야에 인본주의적인 전제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런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진화론적 유물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잠재우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놓고 사상적 체계를 놓은 분이 바로 위대한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이다. 그러

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달리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말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는 어떤 것인가? 카이퍼는 그의 모든 글에서 칼빈의 진실한 후계자로서 또는 칼빈 사상의 부흥가로서 자처했다. 하지만 화란의 신학자 힐케마(C.E. Hylkema)같은 이는 카이퍼를 신 칼빈주의자(Nieuw Calvinisme)로 칭했다. 그러면 카이퍼의 칼빈주의를 신칼빈주의(Neo-Calvinism)로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카이퍼는 칼빈을 그의 멘토로서 철저히 따르며 그의 교리체계를 따르지만 카이퍼는 단순히 칼빈의 복사판(A Copyist of Calvin)이 아니고 칼빈의 사상체계 전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더욱 발전 시키고 구체화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의 사상 체계를 칼빈주의라고 하고 카이퍼의 사상을 신 칼빈주의라고 하나 그 둘 사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다만 칼빈이 일반은총에 대한 원리적인 것만 언급한데 비해서 카이퍼는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사상은 카이퍼 자신이 쓴 그대로 <칼빈주의>라고 쓰는 것이 옳다.

칼빈주의적 세계관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말할 때, 기독교 세계관과 나란히 쓰고 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세계관에는 두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세계관이 되려면, 세

계관은 전 포괄적으로 모든 실제(Inclusive of all-embracing view of realities)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은 하나님, 인간,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안목으로 보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인 것에서 세상의 구체적인 구조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관은 그 판단 기준과 잣대가 처음과 나중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설명할 때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이런 잣대로, 저런 것은 저런 원리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세계관 일수가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을 만유와 만사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란 확고한 하나님중심 사상으로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사회를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 세계관은 유물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충돌이 일어 날수 밖에 없다. 그것을 카이퍼는 대립의 원리(Antithesis)라고 했다. 즉 중생자가 가지는 세계관과 비중생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이는 어쩔 수 없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 하는데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카이퍼는 그의 명저 「신학백과 사전학(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에서 두 종류의 인간과 두 종류의 학문(Tweeerlei Wetenschap)이 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⁴장 칼빈주의와 과학에서도 잘 나타났다. 카이퍼의 주장을 개요하면 이렇다.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마음 또는 의식의 내용이 원리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대립(Antithesis)은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니고,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자기 의식의 대립이며,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자기 의식의 내용은 ‘죄의식’, ‘신앙의 확신’, ‘성령의 증거’임에 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중생자의 마음은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롬1:21)’, ‘굳어진 마음(엡4:8)’이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세계관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카이퍼는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두 종류의 과학론을 주장했다. 그러니 꼭 같은 교육, 꼭 같은 연구 테마를 갖고 연구하는 두 과학자가 있다 해도, 한 사람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면, 그 두 사람의 연구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것이다. 또 그런 판단에서 나온 논리적 결론도 그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유물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카이퍼가 발행한 신문 Standard



일간지 Standard 40주년을 맞이한 카이퍼 포스터, 카이퍼의 멘토 칼빈(J. Calvin)과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cetere)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카이퍼의 문화변증

카이퍼는 독자적으로 개혁주의 원리(Gereformeerde Beginsel)에 입각한 학문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학문으로 보거나 과학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실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카이퍼의 세계관의 근저에는 비중생자가 만들어낸 문화를 중생자가 만드는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카이퍼의 문화변증(Cultural Apologetics)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관심은 불신 문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올 때 그것을 방어하고 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변증을 위해서 카이퍼는 두 분의 멘토에게서 배운 틀이 있었다. 즉 한 분은 16세기 요한 칼빈이었다. 또 다른 한 분은 흐룬 반 프린스터였다. 이들에게 배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인 칼빈주의만이 복음적 기독교를 옹호하고 삶 전체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언제나 대립관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하나님중심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는 어쩔수 없는 투쟁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래서 카

이퍼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기본이며 그 성경만이 우리의 사상과 가치의 기준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구조인, 개인, 가정, 국가, 교회, 학교, 예술, 농업, 상업 등에 관여하신다는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혼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골2:10). 카이퍼의 사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System)의 변화가 필수이다. 그런데 그 체제는 곧 정치체제이다. 정치는 중립이 아니며 누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굴러갈 것인데 그리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른바 정치적 영성(Political Spirituality)을 주장했다. 즉 정치적 영성이란 바로 신앙의 눈으로 정치 영역을 보는 태도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각으로 본다. 혁명의 사상으로 새로운 세상

을 만들겠다는 불란서 혁명사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으로 궁극적으로 진리와 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사상의 세계관이 중요하다.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기본 틀

그러면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기본 틀은 무엇일까? 첫째로 그의 확신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나타낸다고 믿었다. 즉 카이퍼는 요한 칼빈으로부터 출발된 개혁주의 신학과 그 결과로 얻어진 돌트총회,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등에 정리된 신앙위에 확고히 섰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은 특별은총 기구인 교회는 말할것도 없고 문화라는 일반은총의 영역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하나님 주권은 교회는 말할것도 없고 삶의 전분야에 미친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때 당시는 국가 지상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국가의 통치와 권위의 궁극적 원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했다. 국가는 일반은총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기관일 따름이라고 했다.

셋째로 성경중심의 세계관이다. 성경만이 칼빈주의의 정경(Canon)이라는 사상이다. 성경의 원리는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영적인 생활에 표준

일 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규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그토록 일반은총과 문화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것은 정권이 욕심이 아니고, 성경중심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돼서는 안되고 인생의 전 분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술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어떤 학문을 하든지 그 중심에 성경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카이퍼의 입장이다.

넷째로, 교회 즉 특별은총은 모든 삶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야지만, 동시에 일반 은총인 국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정치의 지도자로서 이 둘의 조화와 상호협력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바로 이러한 틀에서 카이퍼는 1898년에 프린스턴대학에서 <칼빈주의의 강>을 하게 됐다. 그것은 평소 그의 사상을 명쾌하게 들어내고, 전 세계에 칼빈주의의 선언을 한 셈이고 카이퍼 사상의 진수를 개요 한 것이다. 즉 그의 칼빈주의의 강은 카이퍼적 칼빈주의 선언 (A Manifesto of Kuyperian Calvinism) 이었다.



정성구 건국대학교 영문학과(B, 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Th, M), 암스텔담 Vrije University(Drs. Theol), Geneva Collage(D, Litt),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 D.),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 D.)를 졸업하였다. 1985년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세워 26년간 국제적 학술 교류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운동에 힘써 왔으며, 한국 칼빈학회 창립멤버로서 여러 해 동안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세계 칼빈학회, 국제개혁주의 신학회, 세계개혁주의 대학연맹, 칼빈주의철학회, 국제복음주의협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총신대와 대신대 총장을 거쳐 현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와 칼빈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다. 저서로 「실천신학개론」, 「칼빈주의 사상대계」, 「개혁주의 설교학」,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내가 만났던 100명의 개혁주의자들」 외 다수가 있다.